

KWDI 이슈페이퍼

수행과제명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() 과제책임자 김동식 연구위원 (Tel:02-3156-7156 / e-mail: dskim@kwidmail.re.kr)

여성의 성 · 재생산 건강의 위험요인과 정책과제

초록

- 여성에게 있어 재생산은 남성과 구분되는 생물학적 특징으로 전 생애의 상당 기간을 차지하면서 민감한 시기로 광범위하게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, 여성의 재생산은 임신과 출산으로만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음. 또한 성은 재생산의 필수요소이며, 이 과정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남성과의 불평등하고 위계적 관계로 인해 침해를 받고 능동적 선택에 제약을 받음. 이에 여성의 성 · 재생산 건강의 위험요인을 조사 · 분석하여, 이 영역에서의 성평등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

1. 연구 배경

- 📍 여성의 다양한 건강 이슈 중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서 매우 중요함. 여성의 건강 자율성을 극대화를 위해 성 권리(sexual right)와 재생산 권리(reproductive right)는 함께 고려해야 함.
 - ▶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줌. 특히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출산이나 임신중단(낙태)은 더욱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음.
 - ▶ 모성이 된다는 것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이지만, 최적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건강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여성의 나머지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- ▶ 여성의 피임법 선택이 남성의 성적 만족 부합에 따라 달라지고, 안전한 피임 없이 위험한 성 관계를 요구 받으면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성적 호기심과 즐거움, 대를 잇기 위한 몸으로 전락하게 됨. 결국 많은 여성들이 파트너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 요구와 행위로 건강과 안전권이 침해 받고 있음.
- 📍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(ICPD)에서 채택한 카이로 행동계획에서는 성과 재생산 건강을 인구통계학적 및 가족계획적 목적과 같은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남녀가 모두 임신과 출산을 할 것인지, 그 시기와 빈도를 결정할 수 있고,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, 성·재생산의 건강을 인권으로 인식해야 함을 천명함.
- 📍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성·재생산의 실태와 건강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, 성평등한 건강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.

2. 연구 결과

📍 연구 방법

- ▶ 연구 대상: 만 20~44세 성인 중 최근 성관계 유경험자 1,222명 조사(남성 607명, 여성 615명)
- ▶ 표본 추출: 2017년 7월 주민등록인구현황통계 기준, 성별·연령별·지역별 비례할당
- ▶ 조사 방법: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, 외부 전문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위탁

📍 연구 결과

▶ 생리 관련 인식 및 이상증상 경험

■ 첫 생리 및 관련 교육 경험

- 평균 13.8세(± 1.43), 초등학교 때 시작 43.3%, 중학교 53.3%, 고등학교 3.4%
- 첫 생리 이전 42.3% 학교 선생님(보건교사 등)을 통해 알게 됨, 21.8% 부모를 통해, 각 6~7% 친구 및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, 나머지 11.7% 어떤 설명이나 정보를 받지 못해 미인지
- 과반수 이상이 '생리는 불쾌하다', '비위생적이다', '수치스럽다', '번거롭다', '고통이다'에 긍정의 응답. 특히 '생리는 번거롭다'는 80%가 긍정의 응답. 대체로 20대, 미혼자일수록 생리관련 부정적 인식이 강함

■ 생리이상증상 경험

- 현재 84% 월경전증후군, 77.2% 생리통(월경곤란), 24.7% 비정상자궁출혈, 15.3% 무월경을 겪고 있다고 응답. 월경전증후군과 생리통을 10년 이상 겪고 있다는 응답도 40% 이상. 그러나 치료 중이거나 치료완료 응답은 10% 미만 수준. 이러한 생리이상증상은 대체로 20,30대 미혼자에게서 많이 나타남. 전체의 93.2%(573명)는 현재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 중임. 평균 2.01개(± 0.93)
- 한 가지 이상 생리이상증상을 갖고 있는 573명의 67.1%(327명)는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. 46%는 불안감, 41%는 우울감과 건강문제, 35%는 성욕구 감소, 21.3% 향후 불임 불안감, 19%는 향후 임신 시 자녀 건강문제를 호소함. 생리이상증상 관련 스트레스는 20대, 미혼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

▶ 생리대

■ 1회용 생리대 관련 부작용

- 1회용 생리대 사용 이후 '냄새' 50.3%, '피부 가려움' 56.8%, '피부 짓무름' 37.3%, '질염 등 건강문제' 28.3%, '습진' 22.8% 그리고 '생리통' 54.2% 경험 (중복응답)
- 전체 여성 615명 중 84.4%(519명)는 최소 하나 이상의 부작용을 '종종' 혹은 '항상' 경험한다고 응답. 이들 중 43.4%(225명)은 다른 생리용품으로 변경 경험이 있음. 실제 변경자의 부작용 개수는 3.44개로 미변경자 2.8개 보다 상대적으로 많음

■ 생리용품 변경

- 다른 생리용품 변경자(225명) 중 면생리대가 50.6%(114명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 탐폰 42.7%(96명), 생리컵 5.8%(13명), 기타 0.9%(2명) 순임. 면생리대는 대체로 30대 이상(53.5%), 탐폰은 20대(45.9%)에서 상대적으로 많음
- 생리용품 변경 이후 52.9%는 '조금 완화', 16.4%는 '많이 완화'되었다고 응답. 생리컵 변경자의 생리 관련 부작용 완화율은 69.2%, 탐폰 변경자 15.6%, 면생리대 변경자 12.3% 순임
- 생리기간이 아닌 평소 생리대 착용자는 74.8%(460명)이며, 그 주된 이유는 '분비물이 있어서 (82.8%)'라고 응답. '출혈이 있어서', '불안감'도 각각 11.5%, 5.2%

▶ 음란물

■ 평생 음란물 접한 경험

- 전체 조사 응답자의 94%(1,149명)는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음란물을 접함.
- 특히 남성(98%)이 여성(90.1%) 보다 좀 더 많음. 여성의 경우 20대(92.3%)가 30대 이상(88.8%) 보다 소폭 많으며, 남성 내에서의 차이는 없음

■ 첫 음란물 경험 시기

- 초등학교 때 34.9%로 가장 많고, 중학생 때 33.0%, 성인이 된 이후 17.5%, 고등학교 때 14.7% 순으로 나타남.
- 초등학교 때만 보면 남성의 40%, 여성의 약 30%, 중학생 때까지 포함해서 보면 남성의 85%, 여성의 50.9%임

■ 성관계 시 음란물 행위 모방 경험

- 32.2%가 파트너(배우자 혹은 연인)와의 성관계 시 음란물 행위를 따라 해 본 적이 있었다고 응답. 여성 내 차이는 없었으나, 남성은 30대 이상, 기혼에서의 모방 비율이 높음

▶ 성관계

■ 첫 성관계 시기

- 남성의 18%, 여성의 9.9%가 청소년기에 경험(중학교 때 혹은 이전, 남성 4.6%, 여성 2.6%), 남성이 여성 보다 좀 더 성관계 경험 시기가 빠름

■ 성관계 인식

- 남성 보다는 여성의 성관계 관련 부정적 인식이 높았음. 즉, '성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'는 16%, '성관계가 무섭고 고통스럽다'는 6.6%, 그리고 '성관계 이후 불안감을 느낀다'는 16%였음
- 여성 내에서는 20대, 미혼에서 가장 높았음. 그러나 남성 내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었음

▶ 피임

■ 피임 방법

- 피임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콘돔(40.8%)이었고, 이어 질외사정(13.5%) 순임. 이 모두 남성이 주로 하고 있음. 여성은 이외 사전피임약, 월경주기법 등도 사용하나, 콘돔, 질외사정 보다 사용비율은 낮음.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도 남성은 12.2%인 반면, 여성은 44.1%로 큰 격차.
- 여기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피임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됨. 즉, 성관계를 미리 계획하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, 여성보다는 남성의 피임법이 활용되기 쉽기 때문임.

■ 피임 실천

- 피임을 하고 있다는 1,098명의 76.8%는 성관계 시 대부분 혹은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. 항상 피임을 한다는 응답률은 여성이면서 20대 미혼에서 가장 높음

■ 피임 결정 및 의견 개진

- 피임 결정은 남녀가 같이 한다는 응답이 거의 과반(49%)에 가까우나, 나머지는 남성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많았음. 특히 여성 내에서도 30대 이상 기혼에서 남성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
- 피임 결정에 대한 의견 개진은 대체로 여성이 남성 보다 많았는데, 특히 20대 미혼에서의 개진율이 가장 높았음. 이 역시 여성의 피임법보다 남성의 피임법이 사용되기 더 쉽기 때문인 것과 관련성이 있음.

■ 피임 관련 인식

- 대체로 '피임은 반드시 해야한다'와 '피임은 나와 상대방이 모두 하는 것이 적절하다'에 대해 대체로 70% 이상이 동의하고, 여성은 남성 보다 응답률이 좀 더 높음.
- 그러나 남성의 콘돔 사용이 로맨틱하지 않고, 성감을 떨어지게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여성 보다 많음. 이러한 남녀의 의견 차이와 왜곡된 성 의식이 성관계 시 피임을 실천하는 장애요인이 되며, 여성이 피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이기도 함

▶ 원치 않는 성관계 및 임신의 두려움

■ 원치 않는 성관계와 성적 자기결정권

- 본인은 성관계를 원치 않지만 배우자/연인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경우가 전체의 48%(578명), 특히 이런 상황은 여성(62.3%)이 남성(33.6%) 보다 더 많이 경험. 여성 내에서도 30대 이상 기혼에서 가장 경험률이 높음(70.7%)
- 원치 않는 성관계의 빈도를 보면, 68.5%는 '가끔' 경험한다고 응답했으나, 13.9%는 '종종' 혹은 '항상' 이라고 응답. '종종' 혹은 '항상' 응답은 여성(16.5%)이 남성(9.3%) 보다 높고, 특히 여성 내에서는 30대 이상, 기혼에서 가장 높음(17.6%)
- 원치않는 성관계 유경험자는 무경험자 보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낮았고, 통계적 차이도 유의미함.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만 나타남
- 원치않는 성관계 이유로는 '분위기를 깨기 싫어서'와 '배우자/연인과의 관계가 깨질까봐'가 전체의 90%를 차지. 특히 전자는 여성이면서 30대 이상 기혼에서, 후자는 남성이면서 30대 이상 기혼에서 가장 많이 응답

■ 배우자/연인의 성관계 의사 무시 및 강압적 성관계 피해

- 배우자/연인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거나, 성관계 시 피임(콘돔 등)을 요구하거나, 혹은 성관계 중 중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강압적으로 행하는 경우는 남녀 모두 있었으나, 남성이 좀 더 이런 경향이 강했음

- 특히 30대 이상, 기혼 남성에게 가장 이러한 경향이 강했음. 이는 앞서 원치 않는 성관계 피해 경험자가 30대 이상 기혼 여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, 이는 일상생활 속에 부부간간이 많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
- 실제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배우자/연인으로부터 폭력(언어적 · 신체적 · 정서적)을 경험한 비율은 5.7%(70명)이었는데, 여성이 8.1%로 남성 3.3% 보다 많음. 특히 30대 이상 미혼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9.6%로 가장 높음

■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및 응급피임약 복용 경험

- 전체 1,222명의 약 1/4인 22.9%가 배우자/연인과의 성관계 이후 (원치 않는)임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두려웠던 적이 있다고 응답. 특히 여성 내에서도 20대, 미혼에서 가장 많음. 남성도 동일하나 여성과의 격차는 큼
-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끔, 종종 혹은 항상 겪었던 여성 474명의 32.1%(152명)은 성관계 이후 응급 피임약을 복용함. 그러나 복용에서의 연령, 결혼상태별 차이는 없음.복용자 152명의 약 70%는 응급피임약 구입은 여성 본인이 직접 의사 상담 이후 약국에서 구입함. 그러나 의사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도 23%가 있음

▶ 임신중단

■ 원치 않는 임신 경험과 그 결과

- 원치 않는 임신 경험자는 전체의 21.8%(266명)로 여성(24.2%)이 남성(19.3%) 보다 소폭 많음. 특히 30대 이상 기혼자에게서 경험률이 높았고, 이들 내 성별 차이는 없었음
- 원치 않는 임신 경험자(266명) 중 3/4인 74.4%(196명)이 임신중단(낙태)을 선택. 특히 20대 미혼 여성에게서 임신중단(낙태) 경험률이 높았음

■ 임신중단 이유 및 결정자

- 임신중단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'미혼이기 때문에(45.4%)'였고, 이어 '내가 원하지 않아서(21.4%)', '경제적 어려움 때문에(13.6%)' 순이었음.
- 주로 여성 본인 스스로가 임신중단을 결정(여성 응답 기준 45%)하거나, 배우자/연인과 같이 하는 경우(여성 응답 기준 38.5%)가 많았음

■ 임신중단 시술기관 및 후유증

- 임신중단(낙태) 장소는 주로(75%) 1차 의원이었고, 2차(여성전문)병원은 21%였음
- 임신중단(낙태) 시술 이후 56%는 죄책감, 우울감, 스트레스 등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했으며, 11.9%는 우울증, 자살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을, 7.3%는 자궁천공, 골반염, 난관염, 출혈 등 신체적 후유증을 중복적으로 경험함

▶ 성 · 재생산 건강

■ 성 매개 감염성 질환

- 전반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(3.7%, 41명) 진단을 받은 비율이 가장 많고, 이어 비임균성요도염 (2.6%, 32명), 클라미디아 및 성기단순포진(각각 2.5%, 31명), 임질(1.7%, 21명), 침균콘딜롬(1.5%, 18명), 매독(0.7%, 8명), 연성하감(0.2%, 2명) 순임. 남성은 매독, 임질, 비임균성요도염이, 여성은 인유두종바이러스, 클라미디아, 침균콘딜롬, 성기단순포진, 연성하감 진단율이 상대적으로 높음. 질환별 치료율에 차이는 있지만, 대체로 70% 이상은 이미 치료를 했거나 현재 치료 중임
- 8가지 질환 중 1개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1%(134명)이었고, 여성(12.5%)이 남성 (9.4%) 보다 소폭 많음. 특히 남녀 모두 30대 이상, 남성은 미혼에서, 여성은 기혼에서 좀 더 많음

■ 재생산(생식) 관련 질환

- 여성은 7가지 관련 질환(질염, 자궁관련질환, 자궁경부암, 남소관련 질환, 난소암, 불임, 골반염) 중 질염의 진단율이 가장 많았음(54.3%, 334명/615명). 이어 자궁과 난소 관련 질환 진단율도 각각 17.7%(109명)와 7.0%(43명)임. 질환별 치료율에 차이를 보이는데, 임질은 95.2%, 골반염, 불임,

자궁경부암은 80% 이상, 자궁 및 난소 관련 질환은 60%대, 1개 이상 질환을 진단 받은 비율은 61.5%(378명)이며, 이들은 주로 30대 이상, 기혼자인 경우가 많았음.

- 남성은 3가지 관련 질환(전립선 관련 질환, 전립선 암, 불임) 중 1가지 이상 진단 받은 비율은 5.4%(33명)이었음. 이들은 주로 30대 이상, 기혼자였음. 이들의 치료율은 72.7%였고, 이 또한 30대 이상, 기혼자에서 치료율이 높음

▶ 다변량 분석 결과

■ 생리이상 증상의 위험요인

- 여성 중에 생리시작 연령이 늦을수록, 자위를 현재 할수록, 생리대 변경 경험이 있을수록, 평소 생리대(팬티라이너 등)를 착용할수록, 그리고 생리대 부작용(가려움, 습진 등)을 경험할수록 생리이상 증상의 위험 확률이 높음

■ 성 매개 감염성 질환 위험요인

- 남성 중 원치않는 성관계를 경험이 있는 경우 성 매개 감염성 질환 위험 확률이 높음
- 여성 중 생리이상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, 성관계시 음란물 모방 경험이 있을수록, 원치않는 성관계 경험이 있을수록, 그리고 성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성 매개 감염성 질환 위험 확률이 높음

■ 재생산(생식) 관련 질환 위험요인

- 남성 중 성 매개 감염성 질환 경험이 있을수록, 피임 실천을 하지 않을수록, 그리고 원치않는 성관계를 경험이 있는 경우 재생산 관련 질환 위험 확률이 높음
- 여성 중 생리이상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, 성 매개 감염성 질환 경험이 있을수록, 성 관계를 자주 할수록, 성관계시 음란물 모방 경험이 있을수록, 피임 실천을 하지 않을수록, 원치않는 성관계 경험이 있을수록, 그리고 성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재생산 관련 질환 위험 확률이 높음

■ 원치 않는 성관계 피해의 위험요인

- 남성 중에는 성평등 의식이 약할수록 원치 않는 성관계 피해 확률 높음
- 여성 중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약할수록 원치 않는 성관계 피해 확률 높음

■ 성관계 시 상대방의 의사 무시 행위의 요인

- 남성 중에는 자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, 성관계시 음란물 모방 경험이 있을수록, 남성 지배적 성의식이 강할수록, 상대방의 성적 의사 존중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성관계 시 상대방(배우자/연인)의 의사를 무시할 확률이 높음
- 여성 중에는 여성 중심의 순결이데올로기 인식이 강할수록, 그리고 부모가 성평등한 관계가 약할수록 성관계 시 상대방(배우자/연인)의 의사를 무시할 확률이 높음

3. 정책제언

■ 전통적 젠더 규범 및 위계적 환경 개선

- 남녀가 평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성적 의사와 몸에 대한 존중 및 상호 책임의식 함양
- 거시적인 계획과 전략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서 전통적인 젠더 규범과 위계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
- 성주류화 정책수단들이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들에 세밀하게 적용되도록 관계 기관 및 담당자의 적극 협조 및 참여

■ 젠더(여성) 기반 폭력 문화 개선

- 남녀 관계에서 평등한 성권리 보장
- 젠더 기반의 폭력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: 정치, 경제, 사회 및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젠더 감수성 함양 및 이를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개발

■ 여성의 성에 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사회적 인식 개선

- 전 국민 대상, 여성의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식과 태도 함양 교육 및 홍보, 캠페인 진행, 불필요한 여성의 신체나 성 묘사에 대한 시정 조치

■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 필요, 이를 위한 학교·가정·지역사회의 협력 채널 구축

- 초경과 몽정을 경험하기 전(초등학교 고학년-중학교 저학년)에 학교(교사)와 가정(부모)에서 관련 교육 실시 및 구체적인 정보 제공
-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관(성문화 센터 등)의 역할과 학교/가정과와의 상호 협력체계 마련 및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생애별 성·재생산 건강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

■ 성평등적이고 성인지적인 학교 성교육 및 부모 교육 강화

- 여성은 자신의 성적 의사권(결정권)을 분명히 표현하고, 남성은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는 등 성별에 따른 성인지적 교육의 강조
- 지역사회 기반 부모 대상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(온·오프라인)

■ 성표현물에 대한 올바른 사고 함양과 왜곡된 성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
- 음란물/성표현물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위한 교육 실시
-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들의 왜곡된 성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관계 기관들의 협조

■ 청소년의 생리이상증상에 관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

- 성에 관한 부정적 인식개선,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의 성인지적 성교육의 강화, 이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
- 초경을 시작하는 학년(초등학교 4학년)부터는 해당 학년 학생건강검진에 성과 생리이상 증상에 관한 문진이나 검진을 통해 사전에 상담을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도록 학교와 사회의 분위기 조성
- 부모와 함께 검진에 참여하여 자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평소 의료기관을 같이 찾아 진료를 받도록 하여 스스로 생리 건강을 유지·증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

■ 파트너에 의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관계로부터 여성의 임파워먼트 강화

- 파트너에 의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관계로부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
- 성평등 관점의 성교육 외에도 별도의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사회적 인식제고와 환경 조성 필요
- 어릴 때부터 연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범죄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교육 필요, 국민들의 참여/실천을 통한 남녀가 성을 존중·배려하는 문화 조성

■ 남성에게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백신 접종 실시

- HPV는 성관계로 전파되며, 남녀가 모두 감염될 수도 있고,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음. HPV는 남성의 음경암 등 생식기관에 위험요인이기도 함. 따라서 남녀 모두 HPV 접종을 실시하고, 만 12세 이상인 경우는 희망자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도 필요

■ 낙태죄 폐지를 통한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 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 필요

- 여성(산모)의 성·재생산을 포괄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 폐지 필요
- 낙태죄 폐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과 자연유산 유도약의 도입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■ 남성용 콘돔 광고 실시 및 관련 규제 완화

- 특정성(여성)에 편중된 피임 광고 개선. 청소년의 콘돔 접근과 관련 정보 습득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남성용 콘돔의 광고규제 개선 필요

■ 여성생리용품 전반에 건강영향평가를 통한 여성의 성·재생산 건강권 보장

- 생리대만이 아니라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용품 전반(탐폰, 생리컵 등)에 관한 건강 영향조사 실시
- 평가 이후의 결과는 정부와 기업 및 민간단체, 그리고 당사자인 여성들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

4. 기대효과

- ✓ 한국사회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선택과 건강의 권리가 남성과의 불평등하고 위계적 관계에 의해 침해받고, 또한 위협과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, 향후 관련 정책에서의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함